

### [2019-3-3] 주일 말씀 녹취록

말씀 : 강만석 목사님

제목 : 성전 미문의 기적

본문 : 사도행전 3:1-10

*1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 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6절에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과 금은 이 세상에 재물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들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재물은 다 복음을 위하여 써버리고 나누어 주어서 실제로 소유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소유하고자 하여도 가지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저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곳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면 사단은 꼬리를 내리며 힘을 얻지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외칠 때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앓은뱅이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영혼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어서 그 이름을 앓은뱅이에게 줄 수 있었던 저들은 가난한자 같았으나 실상은 최고의 부유한 자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와 청교도 시대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은과금을 포기하고 주님의 이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금과 은에 더 많은 관심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바쁜 사람들 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처음에는 구제하고

식사봉사까지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들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능력있는 사역의 비결도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나타내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뻐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초대 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함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 시간에 성령이 임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 하면 내 자신이 주체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고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도에 게으름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 능력을 받으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돼 있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주목하여라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앓은뱅이를 물질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들 속에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어 주고 싶은 뜨거운 영혼 구원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직 베드로와 요한은 앓은뱅이에게 주목하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되니 영혼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도망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정말로 보잘것 없던 자들이지만 구약성서의 무지하고 타인의 영혼에 무관심하던 자들이 변해서 오랫동안 아무런 관심이 아니했던 그들이 영혼 구원의 앞장을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영적 힘을 공급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 구원의 열정이 살아 사로잡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전하고픈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솔직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와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고백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의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누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입니까? 묻습니다. 아무 죄도 아니요 누구 때문에도 아니요 귀신의 역사도 아니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원초적인 모습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섬길 영적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바로 영적 앓은뱅이였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두 장애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장애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다리에 힘을 얻고 영적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면 영원히 앓은뱅이로 장애자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 구걸 하는 앓은뱅이에게 도움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우리의 도움은 그들의 도움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영원히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슴에 심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에 의존해 살던 인생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삶은 축복과 저주 환희와 한탄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영적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 할 때마다 여러분 지역에 흑암은 계속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슴 깊이 체험한 자는 사단의 흑암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단의 손에서 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은 앓은뱅이를 치료하는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 성경의 모든 사망과 실패와 몰락의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에 사단에 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 무딘 모습 보여 왔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했고 죄에 대해서 용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마음껏 사랑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땃땃하게 이야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말없이 이름없이 교회 일을 크고 작은 일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늘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요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 할 때마다 지역이 변화됩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에 드나드는 우리 유치원, 또 애프터 스쿨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선포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와서도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고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죄 안짓고 어떻게 사느냐고 말합니다 죄를 적당하게 지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그럴 듯하게 믿어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복 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고 사단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힘 앓은뱅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 와서 모든 것 맡겨 주고 우리에게 도움이 요청이 될 것입니다 영적 힘 가졌기에 우리의 삶은 신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에 그 그리스도가 세상 사는 지식 때문에 실력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알지 못하는 세계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배후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생각과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배후에 준비하고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온 세상 끝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갔다 우리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다닌다고 하시게 남편은 집사님이시고 시집이 다 예수 믿는 목회자였다 했습니다 본인은 친정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것을 자랑하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얼거 같으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 같이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이시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게 된다면 그 교회에서 또 다시 그리스도를 선포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를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교회 나가는 사람 있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러한 비밀들을 몰라서 현장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거듭남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닭을 우리 유치원 아이들 때문에 여러마리를 키웁니다 닭이 알을 품게 되면 병아리가 깨어납니다 새로운 탄생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자는 다른 세계를 파괴하여야만 합니다 파괴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알에서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거듭남을 위해 반드시 파괴하여야만 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량생산 품으로 생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식처럼 나오셨습니다 우리 당신의 자녀이시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내려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쪽 보면은 너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대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20대 때 참 기쁘게 살았습니다 30대 40대 때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게 살았습니다 지금 60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 같이 그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두었습니다 누가 뭐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 다 가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어려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생해야 되면 고생하게끔 하나님은 놔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시면 못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안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미문에 앉아 있던 앓은뱅이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마음껏 세상 살아 가시면서 자부심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불구자로 살아가는 이 때에 저희들 예수가 그리스도되신 비밀 선지자 제사장 왕되신 그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 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예배를 마치고 각자 흩어진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참사랑 교회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를 마음속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시간에 이곳 저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 램턴트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